

# 2시간 차이로 '아슬아슬'... 이틀 당겨 5G 기습 상용화

5G 한밤 중 상용화... 줄속진행 논란 세계 최초 타이틀 인정될지 '미지수'

'한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빛나는 타이틀은 지난 3일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붙었다. 애초 상용화가 예정된 5일보다 이틀 앞당긴 시점이다. 이로부터 2시간 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상용화를 선포했다. 한 발만 늦어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영예를 잃게 된 셈이다.

5G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 뒤에는 이 같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소동이 일어났다. 정부가 5G 상용화 과제를 앞두고 타국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밤 중 조속으로 5G 상용화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기정통부는 오후 8시께 이동통신 3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4일로 앞당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다. 버라이즌은 애초 5G 상용화 일정을 11일로 정했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4일로 기습 개통을 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라이즌의 5G 기습 개통 정보 또한 국내 모기업의 미국사업부를 통해 정부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5G 스마트폰

## 5G 로드맵 수립부터 '세계 최초 상용화' 발표까지

- 2017
- 12.28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로드맵 수립
- 2018
- 1.31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내 5G 후보기술 제안
- 2.1~3.17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국내 기업 5G 기술 시연
- 6.18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 대상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완료
- 8.16 과기정통부, 5G용 기지국·단말기·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12.1 이동통신 3사, 기업고객 대상 모바일 라우터 기반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 2019
- 3.29 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LG유플러스·KT 5G 요금제 신고
- 4.3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발표 완료, 각사별 1호 고객 대상 5G 스마트폰 개통
- 4.4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공식 발표
- 4.5 삼성 갤럭시S10 5G 출시, 일반고객 대상 개통 시작 예정
- 4.8 5G 산업전략인 5G+(플러스) 전략 발표 예정

연합뉴스

출시, 서비스 이용약관 마련 등 상용화 준비가 예상보다 조기에 완료된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3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는 5G 상용화 시점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일부터 시작되고 이동통신사 전산상 야간과 휴일 개통이 안 되는데도 밤 11시에 개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줄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LG유플러스는 4일 수정된 5G 요금제를 냈는데, 요금제 확정 전에 개통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5G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요금제 반려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이유로 상용화 날짜를 미루는 등 일정을 조정해 왔다.

국제적으로 5G 상용화 세계 최초가 인정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버라이즌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 일반용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카고와 미네아폴리스에서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시간상으로는 한국이 우세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5G 상용화는 5일이기 때문에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버라이즌의 경우 기존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5G 라우터(모뎀)를 연결하는 식이라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않았고, 5G 서비스 또한 LTE보다 10배

정도 빠른 1기가비피에스(Gbps)에 불과하다는 틈새가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최고 2.9Gbps에 달한다. 서비스 지역이 제한됐다는 점 역시 진짜 5G 서비스가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강행해 정부에서 경쟁국 5G 서비스와 동향에 대해 그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무리한 타이틀보다는 완벽한 5G 서비스를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이통3사, 격화되는 5G 요금 경쟁戰

### '데이터 무제한'으로 확전

중저가·프리미엄 등 다양하게 선배

이동통신 3사가 3일 밤 11시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LG유플러스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4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선보인 요금제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5G 스페셜'과 '5G 프리미엄'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요금제는 5G 상용화가 선언된 당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장 먼저 요금제 구성을 밝히며 요금제 전쟁의 서문을 열었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이 차례로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자 초기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새 요금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공개한 요금제는 새로 출시되는 월 8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의 5G 스페셜과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엄 요금제다. 6월 말까지 5G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25% 요금할인 외 추가할인을 받아 24개월 간 각각 5만8500원, 6만6000원에 쓸 수 있다.

프로모션 가입 시 월 연말까지 매출 속도 제한 없는 5G 데이터 무제한 서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신규 5G 요금제를 알려고 있다. /LG유플러스

스도 제공한다.

앞서 KT는 베이직·스페셜·프리미엄으로 구성된 'KT 5G 슈퍼플랜' 요금제를 마련했다. '슈퍼플랜 베이직'은 월 정액 8만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8만9000원의 통털에볼루션(LTE) 완전 무제한요금제인 '데이터ON 프리미엄'보다 9000원 더 저렴하다. '슈퍼플랜 스페셜'과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는 각각 월정액 10만원, 13만원이다.

SK텔레콤은 월 8만9000원, 12만5000원에 한도 없는 데이터를 연말까지 제공하는 '5GX프라임', '5GX플래티넘'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 모두 월 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도 선보였다. LG유플러스의 '5G 라이트'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고, SK텔레콤과 KT의 월 5만5000원 요금제는 8GB의 데이터를 준다. /김나인 기자